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5. 4. 16.

한국산업위생협회

정부·국회

발전기금 모금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1)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단합

2)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1)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2)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3)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함.

3. 기부혜택

1)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2)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1)지원대상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힐링캠프, 체육활동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2)운영방법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유집행 및 회계처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1)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2)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010-2345-3035)

'안전 시그널 ON!' 한국기술교육대, 안전관리 집중주간 운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관리 집중주간'을 운영한다.

'국민 안전의 날(4월 16일)'을 계기로 마련되어 올해 4년째 운영되는 안전관리 집중주간은 전 구성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5일간 전사적 안전 점검과 체험이 운영된다.

먼저 전 부서의 관리감독자 39명이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는 부서별 자체 안전점검으로 집중주간을 시작한다.

둘째 날에는 대학 내 상주 중인 시설관리, 경비, 통학버스, 전산 유지관리 등 협력사와 함께하는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진행된다.

16일 수요일에는 '연구실 폭발로 인한 화재 발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누출 대응, ▲산불·화재 대피, ▲재해자 구조 등 현장 훈련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는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같은 날 체험형 안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참여자가 훈련용 소화기 체험 후 '나의 안전 다짐'을 작성하면 '한기대 안전 히어로'로 인증사진을 남길 수 있다. '안전 히어로가 찾은 대학 내 유해·위험요인은?', '소방대원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 전하기' 등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넷째 날에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을 대상으로 위험물 보관 및 취급 상태, 안전 정보 게시 여부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전체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종합 회의가 개최된다.

유길상 총장은 "이번 '안전관리 집중주간'은 대학 전 구성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내 안전 문화 정착을 선도하는 국책대학이자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국책대학으로, 산업현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OASIS)과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환경공학과 등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70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폐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8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등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한파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발암성이 확인된 4종 물질 취급업무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의 감면 사유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jnj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23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를 폐지합니다

- 시행일 : 2025년 4월 11일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0400785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50400574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 [3/11, 서울 강남구] 절단 작업 중 LPG 용기 폭발
- [3/15, 경기 파주시] 용접작업 중 낙하물에 맞음
- [3/23, 광주 서구] 사다리에서 떨어짐
- [3/25, 경기 의왕시] 리프트 피트로 떨어짐
- [3/27, 경기 양주시] 적재된 원료 더미가 무너져 깔림
- [3/27, 경기 오산시]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
- [3/28, 경기 파주시] 이동 중 운반트럭에 부딪힘
- [3/28, 경기 수원시] 떨어지는 무게추에 맞음
- [3/30, 경기 시흥시] 지붕 판넬 철거 작업 중 떨어짐
- [3/31, 경기 여주시] 석재가 무너져 깔림
- [4/1, 대전 중구] 옥상 단부에서 떨어짐
- [4/3, 경남 양산시] 달비계에 탑승하던 중 떨어짐
- [4/4, 경기 용인시] 냉각기에 끼임
- [4/8, 전남 장성군] 사출성형기 점검작업 중 끼임
- [4/8, 전북 부안군] 외벽 보수작업 중 달비계에서 떨어짐
- [4/9, 경기 김포시] 용접작업 준비 중 떨어짐
- [4/10, 경기 시흥시] 컨베이어 회전부에 끼인 청소도구에 맞음
- [4/10, 서울 중랑구] 후진하는 살수차에 깔림

2026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에 따라 2026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지표에 대한 주요사항 및 평가기준 설명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불임 및 아래의 세부 일정을 확인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일정 확인경로
- 불임 공문 확인
- K2B(k2b.kosha.or.kr) > K2B공지 > “2026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 안내”
※ K2B 공지사항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권한을 보유한 기관의 업무관리자 아이디로 접속 시 확인 가능

[불임1] 2026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지표 설명회 참석 안내 (안전보건진단기관)
[불임2] 2026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지표 설명회 참석 안내 (근로자,직무교육기관, 보건관리, 안전관리, 특수건강진단 및 건설재해예방기관)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5508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25년도「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공모

- 2025년도「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5. 4. 9.(수) ~ 4. 18.(금) 18:00까지
※ 공단 광역·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착기준)

- 신청자격 :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석면조사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 서비스지역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수행기관 간 컨소시엄(공동이행방식) 가능

- 문의처 : 공단 본부 산업보건실 문혁기 과장(T.052-703-0387)
- 세부내용 : 덧붙임 자료(공고문) 참조

2025년 4월 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5510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안전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4.21.(월)까지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전자우편(h.eunji@kosha.or.kr)

붙임1.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서
 붙임2.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3.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5508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방폭분야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ESG 경영의 일환으로 UL 방폭인증 기술토론회 개최...
 “안전과 기술혁신으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이하 “인증원”)은 북미 인증기관인 유엘 솔루션즈(UL Solutions, 미국)과 방폭분야 안전인증 기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방폭분야 안전인증 기술토론회
 - 일시 : 2025. 4. 10.(목) 09:30 ~ 16:00
 - 장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 참석 : 산업안전보건인증원(채창열 원장), UL Solutions(Susan, 이경구 팀장), 방폭기기 제조업 관계자 등

이 토론회는 ESG 경영비전 실천을 위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KCs 및 북미 방폭인증제도의 절차와 기준을 소개하고, 심사 기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511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산재예방 인공지능(AI) 도입 위해 머리 맞대다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4월 4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현중 이사장을 비롯해 국내 산재예방 및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예방 AI 혁신 자문 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위원회는 ‘AI-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산재예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AI로 안전을 빠르고 정확하게

최근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법률, 의료, 제조,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도입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대되며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산재예방 분야에서도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영세 및 중소기업도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신 AI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AI 전문가들과 함께 산재예방 방안 논의

공단은 산재예방 및 AI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재예방 AI 혁신 자문 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국대 서용윤 교수가 ‘AI 시대 산재예방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부산대 진상은 교수가 ‘산재예방 분야 AI 도입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위원들은 ‘AI 기반의 효율적 산재예방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AI 기반 ‘K-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추진

위원회는 향후 분과별 회의를 통해 산재예방 AI 도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행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술 및 인프라 확보, 홍보 및 확산 전략 등 자문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1분과) 산재예방 AI 도입·확산 전략
 (2분과) 산업안전보건 AI·빅데이터 기반 구축

아울러, 공단은 국내 AI 연구기관, 대학, 기업 협력(MOU)을 통해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신 AI 기술 도입과 자체 AI 기술 인력 양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505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외국인 근로자 주말 안전체험교육 열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전남노동권익센터와 협업하여 광주, 전남지역 외국인 근로자 5개국 27명을 대상으로 4월 6일(일) 담양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주말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

◆ 「외국인 근로자 주말안전체험교육」

- 일시 : 2025. 4. 6(일) 10:00 ~ 14:00

- 장소 : 안전보건공단 담양 안전체험교육장

- 참석 :

(공 단) 외국인전담팀 3명, 담양체험교육장 2명

(고용부) 안전문화협력팀 사무관 1명

(전남노동권익센터)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근로자* 27명(통역사 5명 포함), 전남노동권익센터장 등

* 네팔 8명, 미얀마 5명, 베트남 5명, 인도네시아 4명, 캄보디아 5명

이날 교육은 매년 산업현장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중 안전 체험교육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말 체험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체험교육은 네팔,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5개국 외국인 근로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안전체험 및 응급처치 등의 체험교육이 실시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이날 체험교육에 참가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을 담은 안전키트도 지급하였다.

안전보건공단 외국인전담팀과 담양 안전체험교육장 직원들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접 다양한 체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론 교육보다 직접 체험하고 온몸으로 느끼는 체험교육은 현장작동성이 높다"라면서, "교육의 실효성 등을 검토해 향후 주말 안전체험교육을 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505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4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우수기관 발표

- 108개 공공기관中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A등급 6개 기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2024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3월 28일(금) 고용노동부 주관의 평가심의회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4월 15일(화) 108개 공공기관에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경영체제, 관리, 활동,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본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2024년 평가는 총 1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기관에 통보되었다.

이번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과의 상생협력 수준 자체 안전수준 점검을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수준 정부 안전보건정책 참여 수준 등 주요 공정정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실시됐다.

특히, 현장경영자의 안전보건 리더십을 평가하고, 현장평가를 분사평가와 분리하여 실시하는 등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평가 결과, 재해 예방 활동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이 우수한 6개 기관이 A등급(우수)을 받았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환경공단이, 기타공공기관에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각각 A등급으로 선정되었다.

이 외에 B등급 81개 기관, C등급 20개 기관, D등급 1개 기관이었으며, 최상위 등급인 S등급과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한편,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이 안전보건 문화를 선도하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라면서, "공단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산재 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519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오이레터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사회의 입장

특별연장근로 인정제도란?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12시간을 추가하여 **최대 주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당사자간 동의가 있어도 불법**입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근로기준법 53조의 4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특별연장근로 인정제도**입니다.

다음 중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을까요?

- ① 재해·재난 수습
- ② 생명·안전
- ③ 돌발상황
- ④ 업무량 폭증
- 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정답은 '전부'입니다. 4,5번은 2020년 1월 31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중 5번은 원래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일명 소부장)의 연구개발 등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에 의한 건강문제는 어떻게?

특별연장근로 인정제도는 사회적 이득이 있으나, 이로 인해 유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악화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아래와 같은 고시를 2021년에 만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제2021-29호):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요지는 이렇습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

-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 ③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여기에 더하여 **건강검진 시행에 관한 사항**이 제시됩니다.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1.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 2.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서면으로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 3. 검진결과에 따른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의 내용은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2025년 고시 개정으로 변경된 부분

이 고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2호** 로 개정되었으며 2025년 4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은 아래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고시의 내용을 추가한 후, 업무처리지침을 수정하여,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6개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일부개정고시(안)」에 관한 일터건강을 위한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의 입장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라는 기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체적인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118/>